

# “개혁은 진행형... 사람의 변화가 최우선”

## 94년 개혁 20주년 성과와 과제

서의현 원장 3선 반대로 시작  
종권 사유화 막고 자주화 시켜  
직선제 좌절 등 한계도 존재  
“구성원 간 장벽 부술 수 있어야”



4월 10일 조계종 총무원 주최로 열린 94년 종단 개혁 20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고산문화재단도 4월 3일 20주년 기념 포럼을 열고 종단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1994년 4월 10일 조계사. 스님과 재가 10,000여 명이 운집했다. 이들은 3선 연임을 추진한 서의현 총무원장의 사퇴를 비롯해 김형우 내무장관 해임 등을 주장하고 결의했다. 상무대 비리와 공권력 동원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한국 불교를 정화하기 위한 법석이었다고, 94년 종단 개혁의 신호탄이었다.

사부대중의 힘으로 교체한 것”이라며 “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종단 운영의 제도화”라고 설명했다.

해결해야지 균중집회와 같은 세력파로 해결하는 것은 비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구총서 관련 9면>

### 개혁성 기본부터 점검해야

4월 10일 승려대회부터 현재까지 20년이 지나고면서 개혁의 정신은 잘 이어오고 있을까? 종단 주요 인사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혁은 미완이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원장 현승 스님은 10일 세미나에서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돌아볼 것은 '94년도 입법한 내용을 잘 시행했는가'이다”면서 “개혁 당시 입법한 중헌종법들은 20%정도 시행했다. 입법이 50%만 시행돼도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정 스님은 제도가 아닌 사람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종단과 승단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개혁이나 정화는 의미가 없다. 제도가 아니라 승단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세미나에서 사회학적으로 개혁을 분석한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정치·행정적으론 개혁이 이뤄졌을 뿐 사부대

중의 관계, 종단 문화 등에 대해서는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우리 일상에 습관이 돼 있는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했다”면서 “우리의 관행과 의식 태도를 점검해보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개혁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교는 사회와 철용성이 둘러져 있고, 출가자와 재가자 사이에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성벽이 있다. 미래 세대는 이런 장벽을 견디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제도와 문화를 바꿔야 불교는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 직선제, 개혁 성공으로 이끌까

이와 함께 94년 개혁 당시 좌절됐던 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고산문화재단의 20주년 포럼과 총무원 20주년 세미나의 일부 발제자들은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형남 법무법인 신아 변호사는 “화합승단을 목표로 하는 불교에서 대중소외의 현상이 심해지고 이를 틈타 각종 악습과 승풍문란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선거를 통해 대중들의 의사와 청정교단의 요구가 결집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前 교육원장 청하 스님은 10일 열린 기념세미나에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중도들 74.5%가 직선제를 선호하고, 비구니 스님 45%가 참종권에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라면서 “20년 전부터 여론 논의가 있지만 아직 종단적 토양이 그것을 수용할 분위기가 아니라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본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 “인권 말살 출입국관리법 철회하라”

마주협, 4월9일 관련 법 개정안 저지 기자회견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마하이주민주지원단체협의회(이하 마주협)의 주최로 4월 9일 전법회관에서 열렸다. 마주협은 이를 이주민을 차별하는 개악이라고 규정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문제가 되는 개정안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대폭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의심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사업장과 기숙사 등에 대해 아무런 제한없이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 것이다. 이를 저지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됐다.

마주협 측은 “이는 체포, 수색 등을 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업장에 있는 외국인을 상대

로 조사할 경우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를 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경 스님은 “정부가 배제를 원칙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접근한다”며 현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이주노동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고 운을 뗀 공동대표인 회일 스님은 “이는 사회통합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되는 법이다. 이주민노동자가 무작위 검열을 피해 종교단체에 피신할 경우, 정부와 종교 마찰은 계속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마주협은 향후 시민단체와 연대해 개악안 저지 운동에 나서며 범국민 인식 개선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국회의원 면담 추진, 출입국관리법 개선안 마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현진 기자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마하이주민주지원단체협의회(이하 마주협)의 주최로 4월 9일 전법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회일·진오·탄경 스님.

# 남북민간교류사업, 이것만 알고 가세요

민추본 4월 9일 김이경 前 총장 초청 월례강좌 진행

조계종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가 남북민간교류, A부터 Z까지를 주제로 4월 9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3차 월례강좌를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이는 김이경 前 우리레제나리노이운동본부 사무총장. 김 前 사무총장(사진)은 손꼽히는 남북민간교류분야전문가로 풍부한 현장경험을 예로 들어가며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팁을 제공했다.

국제인도지원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득을 내세우는 것은 북한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했다.

했다. 서로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민족공동체적 이익을 북측에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들뜬말투로 남북지원책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지적하며 민간교류사업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북한에 가보면 남측이 짓다만 병원이 부지기수와 재료를 대준다며 설립한 병공장도 멈춘 곳이 많다”며 현 정부의 대북농업현실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배현진 기자 iinus@hyunbul.com

### 시작부터 한계 보완 절반의 성공

1994년 개혁의 성과는 분명하다. 세속정치세력과 결탁해 종단을 사유화하려 했던 기독교 세력의 전횡을 사부대중의 공의로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덕승총림 수석사 방장 설정 스님은 4월 10일 열린 종단 개혁 20주년 세미나에서 “94년 종단개혁은 불교의 자주성을 훼손하며 종권을 사유화하려던 종단 지도부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사)대한불교청년회 참교육문화사업단은 4월 5일 인사동에서 호기놀이를 재연해 시민들에게 흥겨운 한마당을 선사했다. 사진은 기자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 “전통 재연하며 연등축제 알려요”

봉축위, 호기놀이가 재연행사

호기놀이는 초파일이 되기 수십일 전부터 아이들이 연등 제작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행해지던 고려시대 어린이들의 놀이다. 종이로 오리 기를 만들고, 물고기 껍질을 벗겨 북을 만들어 두드리며 때를 지어 각 동네를 다니면서 등 재료 구입비용을 구했다고 한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호기놀이가 서울 인사동에서 재연됐다. 중요무형문화재 122호 연등회와 (사)대한불교청년회 참교육문화사업단은 4월 5일 인사동에서 호기놀이를 재연해 시민들에게 흥겨운 한마당을 선사했다. 글·사진= 정혜숙 기자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지정

# 기장 장안사 대웅전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 機張 長安寺 大雄殿 石造釋迦如來三佛坐像

2008년 부산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94호로 지정된 ‘기장 장안사 대웅전 석조 석가여래삼불좌상’은 17세기 중엽 경에 활약한 ‘낙원(鹿元)’이 수조각승을 맡아 1659년에 불석(佛石)으로 조성한 작품으로 문화재청이 3월 6일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으며 30일간의 지정 예고기간 중 수렴된 각계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된다. 이에 앞서 장안사 대웅전(1657년)은 2012년 8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771호로 지정된 바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안사 주지 정오 합장 051)727-2393

불기 2558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기장군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

- 일 시 : 2014년 4월 20일(일) 오후 4시 ~ 9시
- 행 사 : 달마퍼포먼스 5시 / 축하공연 5시 30분 / 봉축법요식 6시 / 제등행진 7시 / 경품추첨 8시 (자전거 10대, 가전제품 다수)
- 장 소 : 기장중학교 운동장 및 강당
- 주 관 : 기장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및 연한신도회(회장 이재순)

주최 : 기장군불교연합회 봉축위원회